

<온실가스 줄이기는 계속 되어야한다>

노경민 (고려지부)

코로나 19 덕분에 환경이 좋아졌다는 기사를 우리는 종종 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광객 감소로 인해 에메랄드 빛을 되찾은 베네치아의 운하와 맑아진 하늘로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게 된 인도 등의 사례가 있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코로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보다 약 4~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 4월 초 최대 봉쇄 기간 동안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일일 평균 추정치에 비해 1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기후 변화는 멈춘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폐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맞으나, 기후변화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2019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5ppm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407.9ppm) 농도보다 2.6ppm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록 코로나 19에 따른 규제 정책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 감소효과는 겨우 0.08~0.23ppm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현저히 낮추지는 못한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6월 초에는 전 세계 일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수준으로 거의 되돌아갔다는 WMO의 발표도 있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온실가스로, 이 때 온실가스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된다. 이산화탄소의 수치를 줄여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전세계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 협정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온실가스의 증가는 인간의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온실가스는 산업체와 발전소, 운송수단, 전기 등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발생한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때 나오는 가스가 고농도의 메탄을 함유하고 있어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30배 이상 높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공유하는 제품 대신 일회용품을 소비해 쓰레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지난해 대비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활용하지 못하는 폐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는 주로 소각되는데, 이는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시켜 지구 온난화를 심화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활용 분리배출을 준수해 소각되는 쓰레기 양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소비 형태와 재사용 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아울러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등 일상 생활 속에서도 개인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세계 시민으로 환경보호 의식을 고양하고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공동번영을 구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요구되는 바이다.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984502_32647.html

<https://news.un.org/en/story/2020/11/1078322>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71>

<https://www.voakorea.com/coronavirus/corona-climate>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the-paris-agreement>

이미지출처: freepik